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 아이 출산을 점치다(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제공해 준 사례이다. 그의 외조카딸이 출산 예정일에 임박하여 아이 출산을 점쳤는데,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신유일(辛酉日) 을미시(乙未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이위화(離爲火)가 화뢰서합(火雷噬嗑)으로 변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辛酉日 乙未時 八卦

離爲火(離火宮) 之 火雷噬嗑(巽木宮)

兄己巳 <small>亡地</small>	蛇兄己巳	世伏兄己巳 <small>亡地</small>
世孫己未 <small>帳花鞍馬月</small>	勾孫己未	伏孫己未 <small>帳花鞍馬月</small>
財己酉 <small>閏害鬼將</small>	朱財己酉	伏財己酉 <small>閏害鬼將</small>
孫庚辰 <small>帳馬月天</small>	青官己亥	應伏官己亥 <small>花劫喜馬</small>
應父庚寅 <small>地乙花劫</small>	玄孫己丑空	伏孫己丑空 <small>帳天蓋</small>
官庚子空 <small>馬災害</small>	白父己卯	伏父己卯 <small>花馬災</small>

六冲卦

卦身: 兄巳  
世身: 六爻

空亡: 子丑

뒤에 갑자일(甲子日) 미시(未時)에 의사가 미처 주사를 놓기도 전에 딸아이를 출산하였다.  
 이것은 자손(子孫)을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자손이 양현(兩現)했으니, 공망(空亡)된 자손 축토(丑土)를 용신으로 삼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참고로 삼는다. 자손 축토가 공망이나, 월(月)이 방부(幫扶)하여 왕상(旺相)하고, 일충(日冲)을 받은 묘목(卯木)이 암동(暗動)하여 자손을 극(剋)하는데, 해수(亥水)가 독발(獨發)하여 또 자손 진토(辰土)를 화출(化出)하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수가 독발하여 자손으로 화(化)하니 해일(亥日)에 아이를 낳아야 하겠지만, 자손 축토가 시충(時冲)

을 받아 암동을 일으켰고 이효(二爻)는 태위(胎位)가 되므로 충(冲)은 합(合)에 응(應)하니, 갑자일에 출산한 것이다.  
 자손 축토가 공망이고 또 자손 미토(未土)가 오효(五爻)에 임했으므로, 미시가 축토를 충실(冲實)하고 또 자손 미토가 당치(當值)하여, 기신(忌神) 묘목이 입묘(入墓)하였다.  
 주괘(主卦) 이(離)는 중녀(中女)가 되고, 독발하여 자손 진토로 화하여 음효(陰爻) 자손을 변출(變出)하였으며, 또 진토를 반괘(返卦)하면 손(巽)이 되고 손은 여자가 되므로 딸을 낳았다. 육충(六冲)은 속도가 빠름을 주한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占生孩子 (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给我的一个案例。其外甥女临近预产期，占生孩子，于癸卯年壬戌月辛酉日乙未时 (旬空：子丑)，得离为火之火雷噬嗑。

騰蛇 兄弟巳火‘世’  
 勾陈 子孙未土”  
 朱雀 妻财酉金’  
 青龙 官鬼亥水○应            子孙辰土  
 玄武 子孙丑土”  
 白虎 父母卯木’

后于甲子日未时，医生都没有来得及打针就生下女孩。  
 此以子孙为用神。子孙两现，以空亡子孙丑土为用神，另外一个做参考。子孙丑土空亡，但月帮扶旺相，日冲卯木暗动克子孙，独发又化出子孙辰土。正常情况，亥水独发，化子孙，亥日生孩子，但子孙丑土被时冲引起暗动，二爻为胎位，故冲应合，甲子日生下。  
 子孙丑土空亡，又子孙未土临五爻，故未时冲实丑土，又子孙未土当值。忌神卯木入墓。  
 主卦离为中女，独发化子孙辰土，变出阴爻子孙，又辰土返卦为巽，巽为女，故生女孩。六冲主速度快。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 제8장 부모님을 여의고, 이천(伊川) 땅에 효성을 다해 장사 지내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침묵의 시간은 소리없이 깊어만 갔다. 소옹(邵雍)이 백원(百源)에 은거하며 도를 깨닫고 몸을 닦은 지 수년이 흘러, 어느덧 서른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반평생 동안 큰길길 구하고 나라 안의 산하를 두루 유람하며, 문을 닫아걸고 학문을 연구한 끝에 그의 학식은 날로 하늘과 땅을 꿰뚫을 만큼 통달해졌고 그의 심성은 날로 담박하고 초연해졌다. 그러나 늘 곁을 지키며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던 부모님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날로 연로하고 쇠약해졌다. 아버지 소고(邵古)는 반평생을 담박하게 농사짓고 글을 읽으며 평생토록 공명을 탐하지 않고 걸치레를 쫓지 않았기에, 청백한 가풍으로 소옹의 몸에 곧은 풍골을 길러 주었다. 어머니 이씨(李氏)는 온화하고 두터우며 자비로운 성품으로 수십 년 동안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가정을 꾸렸고, 청빈한 세월 속에서도 묵묵히 자녀들의 성장을 보살폈다. 부모님이 보여준 이러한 가르침과 몸소 나타낸 본보기야말로 소옹이 온전한 심성으로 순수하게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뿌리이자 근본이었다.

반평생의 풍상과 노고를 겪은 후, 두 어른은 말년에 몸이 약하고 기운이 쇠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병상에 눕게 되었다. 소옹은 학문을 닦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도를 논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은 채, 종일토록 침상 앞을 지키며 탕약 수발을 들고 부모님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으며 아침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효도를 다했다. 그는 천지가 번성하고 쇠퇴하며 오고 가는 이치를 통달하여 사람의 수명에는 끝이 있고 삶과 죽음에는 정해진 운수가 있으며 자연의 섭리인 윤회에는 결코 예외가 없음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극한 정성을 품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오직 부모님이 평안하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세월은 무정하고 타고난 수명은 정해져 있어서, 연로한 부모님은 끝내 잇달아 세상을 떠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반평생 동안 의지해 온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기둥이 하루 아침에 모두 떠나가 버렸기에, 평소 고요하고 덤덤하던 소옹의 마음속에도 깊고 무거운 슬픔이 밀려왔다.

당시 북송(北宋) 민간의 상장례 풍속은 대부분 사치를 숭상하여, 세상 사람들은 걸치레를 중히 여기고 무덤을 거창하게 꾸미며 허례허식을 일으켰다. 두터운 장례로 효심을 과시하고 성대한 예법으로 명성을 얻으려 했기에, 번잡한 절차만 겹겹이 쌓아 올려 재물과 인력을 허투루 소모할 뿐 진실한 정성은 보기 드물었다. 소옹은 예악의 본원과 성현의 예법을 깊이 통달했기에, 상장례의 핵심은 정성을 다해 그리워함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사치나 걸치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옛 예법을 엄격히 지켜 그 근본을 바로 세웠고, 세속의 사치스러운 장례 풍조를 물리치고 번잡하게 벌이거나 두터이 장사 지내지 않으며 세속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 장례의 모든 절차는 본마음을 따르고 질박함으로 돌아가, 가장 간소한 형태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후사를 치렀다.

그는 친히 시신을 거두고 상례를 다스렸으며, 베옷을 입고 흰 갓을 쓴 채 맑은 마음으로 예법을 지켰다. 화려한 승려나 도사를 청하지 않고 허망한 법사도 지내지 않았으며, 오직 향을 피워 추모하고 고요히 그리워할 뿐이었다. 일생 동안 청빈했던 소씨 가문은 시종 시서로 가정을 전하고 덕행으로 몸을 세웠기에, 소옹은 허식적인 걸치레로 부모님의 담박했던 일생과 본마음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세속의 번잡한 예제가 부모를 여윈 자식의 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삶과 죽음이라는 큰일에 정성을 가장 존엄하게 여기고 공경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이러한 간박하고 지극한 효행이야말로 부모님이 일생 동안 보여준 청백하고 담박했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였다.

조상을 모실 때는 반드시 신령한 땅을 택해야 하고, 뿌리를 내려 몸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학문의 맥이 흐르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소옹은 중주(中州)의 산수를 두루 유람하며 재삼 고치고 생각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수(伊水)의 기슭이자 낙양(洛陽) 근교의 좋은 땅을 선정하여 부모님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이천의 산수는 맑고 화평하며 문맥이 길게 이어져 예로부터 중주의 신령스럽고 수려한 땅이었기에, 세상의 시끄럽고 복잡한 소란을 멀리하고 물과 흙이 안온하며 기운과 풍광이 고요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잠들어 계시기에 가장 적합했다. 이로부터 소씨 가문은 중주에 적을 두게 되었고, 소옹 역시 정식으로 낙양 지계에 뿌리를 내려 공성(共城)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끝마쳤다. 이로써 그의 심신과 가풍, 학문의 맥을 천하의 중심인 이곳의 비옥한 토양에 철저히 정착시켰다.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나자, 소옹은 옛 예법에 따라 문을 닫고 삼년상에 들어갔다. 3년의 시묘 기간 동안 그는 바깥일을 단절하고 교유를 사양했으며, 연회에 나가지 않고 도를 논하지 않으며 유람도 하지 않았다. 종일토록 초막에 거처하며 고요히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맑은 마음으로 도를 되짚었다. 낮에는 무덤 앞을 청소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올리며 부모님이 반평생 기르고 가르쳐 준 은혜를 추모했고, 깊은 밤에는 홀로 고요히 앉아 깊이 생각하며 반평생 동안 옮겨 다니고 떠돌며 농사짓고 글을 읽으며 학문을 구했던 길을 되돌아보았다. 부모님의 돈독하고 두터운 인덕, 담박한 지조, 사람을 기르던 초심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오르니, 그는 자신이 가난에 만족하며 도를 즐기고 사물 외로 초연한 풍골이 모두 가문의 청백한 가풍이 대대로 길러준 덕분임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시묘하며 고요히 생각하던 세월은 또한 소옹이 다시금 도를 깨닫고 심성을 승화시키는 계기였다. 예전에는 대도를 관찰할 때 대부분 천지 사시와 음양의 수리, 산하의 흥망성쇠로부터 착수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하늘의 규칙과 수리의 정해진 차례여서 차갑고 투명했으나 인간 세상의 온정은 다소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 친히 생리사별을 겪고 혈육의 정이 떠나가는 무상함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는 인간 세상의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 인정의 온도를 모조리 대도 속에 융합시켰다. 그는 마침내 천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는 성하고 쇠하며 사라지고 자라는 차가운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으며 자비롭게 존속하는 인문적인 온정이 있음을 철저히 깨달았다. 자연의 섭리는 사시가 번갈아 바뀌는 철칙일 뿐만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짐에는 마침내 때가 있고 삶과 죽음은 스스로 순환한다는 탄탄하고 바른 도리임을 알게 되었다.

삶과 죽음의 한 관문을 깨뜨려 넘어서니 대도는 다시 한 층의 투명함을 더했다. 소옹은 더 이상 단편적으로 수리를 따져 넓혀가거나 천도의 현묘함에만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경외하고 인정을 헤아리며 본마음을 보배롭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별을 겪고 고요히 생각하여 도를 깨닫고 나니, 그의 심성은 청년 학자의 예리하고 외로운 고고함을 벗겨내고 온유하고 두터우며 침착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더하게 되었다. 학문은 더 이상 허공에 매달린 천지의 의리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부합하고 사람의 마음에 통달하며 하늘의 섭리와 인정을 겸비한 원만한 지혜가 되었기에, 격국은 더욱더 열리고 심경은 더욱더 여유로워졌다.

부모님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가풍은 영원히 존재하고, 삶과 죽음을 깨뜨려 넘어서니 도를 향한 마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3년의 시묘 기간이 만료되자 소옹은 마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음속의 슬픔을 깨끗이 쓸어내고 지나간 세월의 떠돌이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준 은택을 몸에 짊어지고 반평생 배운 바를 가슴에 품은 채, 이락(伊洛)의 문맥의 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청백한 가풍을 지키며 지극한 정성의 도심을 지니고서, 훗날 편안히 거처하며 학문을 세우고 책을 저술하여 도를 전할 날을 고요히 기다렸다. 그리하여 더욱 침착하고 두터우며 온유하고 투명한 대도의 지혜로써 계속해서 세상을 행하며 만고의 이치를 참구하였다.

### 第八章

双亲终老，执礼尽孝葬伊川岁月流年，静守无声。邵雍隐居百源、悟道修身数年，已然步入而立之年。半生求索大道、遍历山河、闭关研学，其学识日渐通天彻地，其心性日渐淡泊超然，而常年相伴左右、默默扶持其人生路的双亲，却在时光流转中日渐年迈衰老。邵古半生淡泊耕读，一生不慕功名、不逐浮华，以清白家风滋养邵雍一身风骨；母亲李氏温良敦厚、慈悲向善，数十年勤俭持家、默默持守，于清贫岁月中护佑儿女成长。父母二人的言传身教、润物无声，是邵雍超脱心性、纯粹治学的根源根本。

历经半生风霜劳碌，二老晚年体弱气衰，先后缠绵病榻。邵雍放下一切推演治学、交游论道之事，终日侍奉榻前，尽心照料汤药起居，晨昏不离、悉心尽孝。他通晓天地盛衰往复之理，深知人寿有终、生死有数，天道轮回从无例外，却依旧心怀赤诚、寸心尽孝，唯愿双亲安康安稳。奈何岁月无情、天命有定，年迈双亲终究相继辞世，安然归于天命。半生依托、至亲依靠，一朝尽数离去，让素来静定淡然的邵雍，心生深沉悲戚。

时世风俗，北宋民间丧葬多尚奢靡，世人重排场、厚陪葬、兴浮华，以厚葬彰显孝心，以隆礼博取名声，繁文缛节层层堆砌，徒耗财力物力，却少真心诚意。邵雍深通礼乐本源、圣贤礼法，知晓丧葬之礼，贵在诚心、重在缅怀，而非外在浮华排场。他恪守古礼、正本清源，摒弃世俗奢靡丧葬之风，不铺张、不厚葬、不滥俗，一切仪制遵从本心、归于质朴，以最简形制、最诚心意料理双亲后事。

他亲手收敛、亲自治丧，布衣素冠、清心守礼，不请浮华僧道、不做虚妄法事，唯有焚香追思、静默缅怀。一生清贫的邵家，始终以诗书传家、以德行立身，邵雍不愿以虚饰排场辱没双亲淡泊一生的本心，亦不愿让世俗繁缛礼制，冲淡至亲离别之赤诚。死生大事，以诚为尊，以敬为本，这般简朴至孝之举，恰是对双亲一生清白淡泊最好的告慰。

安葬先祖，必择灵地；扎根立身，必归文脉。邵雍遍历中州山水，斟酌再三，最终选定伊水之畔、洛阳近郊的吉地，为双亲修筑坟茔。伊川山水清和、文脉绵长，自古为中州灵秀之地，远离尘嚣纷扰，水土安稳、气韵沉静，最宜安厝先人、长眠静守。自此，邵氏先祖落籍中州，邵雍也正式扎根洛阳地界，告别共城旅居岁月，彻底将身心、家风、文脉根植于这片天下之中的文脉沃土。

双亲既葬，邵雍依古礼闭门守孝。三年守孝期内，他隔绝外事、谢绝交游，不赴宴、不论道、不游历，终日居于庐舍，静坐思亲、静心思道。白日里清扫墓前、祭扫晨昏，追忆双亲半生养育、言传身教之恩；深夜中独坐静思，回望半生迁徙流离、耕读求学之路。父母的敦厚仁德、淡泊操守、育人初心，一一浮现于心，让他愈发明白，自身安贫乐道、超然物外的风骨，皆源于家门清白家风的代代滋养。

守孝静思岁月，亦是邵雍再度悟道、升华心性的契机。从前观大道，多从天地四时、阴阳数理、山河兴衰入手，所见多是天道规则、数理定序，冷峻通透却少几分人间温度。而今亲历生离死别、体悟亲情无常，他将人世生死、悲欢离合、人情温度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尽数融入大道之中。他终于彻悟，天地运化不仅有盛衰消长的冰冷规律，更有生生不息、慈悲存续的人文温情；天命自然不仅是四时更迭的铁律，更是聚散终有时、生死自循环的坦然正道。

生死一关勘破，大道更添一层通透。邵雍不再片面执着于数理推演、天道玄妙，更懂得敬畏生命、体恤人情、珍视本心。历经此番至亲离别、静思悟道，他的心性褪去青年学子的清锐孤高，多了几分温润厚重、沉稳包容。学问不再是悬空的天地义理，而是贴合人间、通达人心、兼顾天道与人情的圆满智慧，格局愈发开阔、心境愈发从容。

双亲归土，家风长存；生死勘破，道心弥坚。三年守孝期满，邵雍扫尽心中悲戚，告别过往岁月的漂泊辗转。他身负双亲遗泽、怀揣半生所学，扎根伊洛文脉之地，守清白家风、持至诚道心，静待来日安居立学、著书传道，以更沉稳厚重、温润通透的大道智慧，继续行走世间、参悟万古。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 왕지환전(王之渙傳)

왕지환(王之渙)은 자를 계릉(季凌)이라 했으며, 병주(并州) 태원(太原) 사람이다. 성 당(盛唐) 시기의 저명한 시인이자 변방의 풍경을 노래한 거장이다. 왕지환은 태원의 이름난 명문가 출신으로, 가문이 청아하고 대대로 문학을 숭상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기질이 호방하고 성품이 소탈하며 막힘이 없었다. 젊어서부터 재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기개가 높고 곳곳하여 세속의 예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소년 시절에는 수많은 책을 널리 읽었는데 특히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붓을 들어 글을 쓰면 날아갈 듯하면서도 굳세어 스스로 독창적인 격조를 이루었다. 그는 고개 숙여 과거 시험에 매달리거나 벼슬길에 분주히 뛰어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 타고난 성품이 유람을 좋아하여 북방의 산하를 널리 돌아다녔고, 변방의 거친 들판을 말 타고 달리며 끝없이 넓은 사막에 외롭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황하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또한 국경의 험준한 산방어선과 눈바람 치는 요새를 유람하며, 북국 산하의 웅장하고 광활한 풍경과 변방의 풍상을 모조리 시와 문장에 담아냈다.

성당 시절에는 변방을 노래하는 시풍이 한창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왕지환의 작품은 독보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격조가 높고 깊으며 풍기는 기상이 웅혼하여, 가냘프게 꾸미거나 기교를 부린 태도가 전혀 없고 산하의 거대한 기운만 온전히 남아 있었다. 그가 지은 시는 그리 많지 않아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한 편 한 편이 모두 천고에 빛나는 절창이다. 《등관작루(登鶴雀樓)》의 스무 글자는 극치로 간결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아,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끊임 없이 나아가는 선비의 흥증을 남김없이 그려내어 만세의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涼州詞(양주사)》는 푸르고 쓸쓸하면서도 웅장하고 광활하여, 변방의 외로움과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충의를 남김없이 묘사했다. 서글프면서도 비장하지 않고 웅장하면서도 강개하여, 성당 시기 변방 시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그의 시와 문장은 번잡하게 많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정묘함을 추구했으니, 가장 간결한 필묵으로 지극히 멀고 깊은 경지를 만들어내어 그 서릿발 같은 기개가 한 시대를 압도했다.

왕지환은 평생을 맑고 담박하며 활달하게 살았다. 벼슬길은 순탄치 않아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조정의 공명을 탐하지도 않았으며, 날마다 자연에 정을 기탁하고 산하를 읊조릴 뿐이었다. 태평성대에 살면서도 늘 천지의 아득하고 넓은 사색을 품었고, 집안과 나라가 안정되기를 염원했다. 그의 시는 태원 산천의 웅혼한 기운을 이어받았고 진나라 사람의 탄탄하고 강인한 성품을 품고 있었으니, 필묵 사이에는 오직 산하의 풍골과 선비의 가슴속 깊은 기상이 가득했다. 비록 후세에 전해지는 작품은 드물지만 자자구구가 구슬 같아서, 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낮은 벼슬에 머물렀으나 시문을 짓는 뛰어난 재주만으로 성당의 문단에 이름을 떨쳤으니, 병주 문인의 호방하고 활달한 기개를 널리 드러내고 태원의 학문적 맥에 천 년 동안 이어질 시의 운치를 더하여 영원토록 흐르게 했다.

역사를 돌아보며 평하건대, 태원은 태행산(太行山)의 곁에 자리하여 분수(汾水)를 옷깃으로 삼고 산하를 띠로 둘렀으니, 산천이 수려하고 땅의 기운이 온화하고 두터워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예로부터 용이 서린 승지로 일컬어지며 어진 인재를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상고 시대의 태태(臺駘)는 강물을 소통시키고 흙을 다져 병주의 천 년 기틀을 열었으니 진 땅 문명의 조상이 되었고, 성당의 디런제(狄仁傑)는 충성을 굳게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 사직을 바로잡고 당나라의 명맥을 보전했으니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 하고 백성을 향한 인애를 품었다. 조송(趙宋) 시기의 양업(楊業)은 북쪽 변방을 굳게 지키다 피 흘려 나라에 순국하여 진 땅 사람의 충렬 가득한 기개를 주조했고, 명청(明清) 교체기의 부산(傅山)은 은거하며 절개를 지키고 학문을 닦아 세상을 구제하며 한 시대의 고결한 선비이자 큰 유학자가 되었다. 또한 왕창령(王昌齡)의 시는 성당에서 으뜸이었고, 유종원(柳宗元)은 뛰어난 문장으로 당나라의 역사를 닦았으며, 왕지환의 시는 천고에 전해진다. 여러 현인이 처한 시대는 서로 다르고 행한 일 또한 각기 달랐으나, 모두 태 원의 물과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산하의 신령한 기운을 이어받아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며 말을 남겼으니 각각 썩지 않을 이름을 남겼다. 한 지역의 학문적 문맥은 산수에서 비롯되어 앞서간 현인들에 의해 완성되는 법이다. 여러 현인의 기개가 병주의 천 년 밑바탕에 침전되어 삼진(三晉) 땅의 충의와 문학을 숭상하는 풍조를 주조했으니, 아름다운 이름이 백세에 흐르고 영원히 천 년을 이어갈 것이다.

### 王之涣传

王之涣，字季凌，并州太原人，盛唐著名诗人，边塞名家也。之涣出身太原望族，家世清雅，世代崇文。其自幼天资豪迈，性情疏朗倜傥，少有才名，性情傲骨，不拘世俗礼法。少时博览群书，尤擅诗文，落笔飘逸苍劲，自成风骨。其不屑埋头科举、奔走仕途，生性好游，遍历北方山河，驰骋边塞原野，观大漠孤烟、长河落日，览关山雄峙、风雪边关，将北国山河壮阔、边塞风霜尽数纳于诗文。

盛唐之时，边塞诗风鼎盛，而之涣之作独树一帜，格调高远、气象雄浑，无纤柔雕琢之态，尽存山河大气。其诗作不多，传世寥寥，然篇篇皆是千古绝唱。《登鹳雀楼》二十字，极简极邃，写尽登高望远、进取不息之胸襟，启蒙万世世人；《凉州词》苍凉壮阔，写尽边塞孤寂、戍边忠义，凄而不悲、壮而慷慨，为盛唐边塞诗压卷之作。其诗文不求繁多，但求精妙，以极简笔墨，造极远意境，风骨凛然，冠绝一时。

之涣一生活淡旷达，仕途清淡，未曾身居高位，不恋朝堂功名，终日寄情山水、吟咏山河。身居盛世，却常怀天地辽阔之思、家国安定之愿。其诗承太原山川雄浑之气，含晋人坦荡刚毅之性，笔墨之间，尽山河风骨、士人胸襟。虽传世篇章稀少，然字字珠玑，跨越千年依旧脍炙人口。以布衣之身、诗文之才，扬名盛唐文坛，彰显并州文人豪迈旷达之风骨，为太原文脉添千秋诗韵，永世流传。

论曰：太原居太行之侧，襟汾水、带山河，山川钟秀，地气浑厚，自古号龙城胜地，贤才辈出，代不乏人。上古台骀疏河定土，开并州千年基业，为晋地文明之祖；盛唐狄仁杰秉忠持正，匡扶社稷、保全唐祚，尽臣子之忠、怀苍生之仁；赵宋杨业戍守北疆，浴血殉国，铸晋人忠烈风骨；明清傅山隐居守节，治学济世，成一代高士鸿儒。更有昌龄诗冠盛唐，大雅辅唐修史，之涣诗传千古。诸贤所处时代不同，所行之事各异，然皆根植太原水土，承山河灵气，立德、立功、立言，各垂不朽。一地之文脉，源于山水，成于先贤。诸贤风骨沉淀并州千年底蕴，铸就三晋忠义崇文之风尚，流芳百世，永续千秋。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용(인스타: sangjun2495) (용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 《신의천진(神醫天真)》 1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하나.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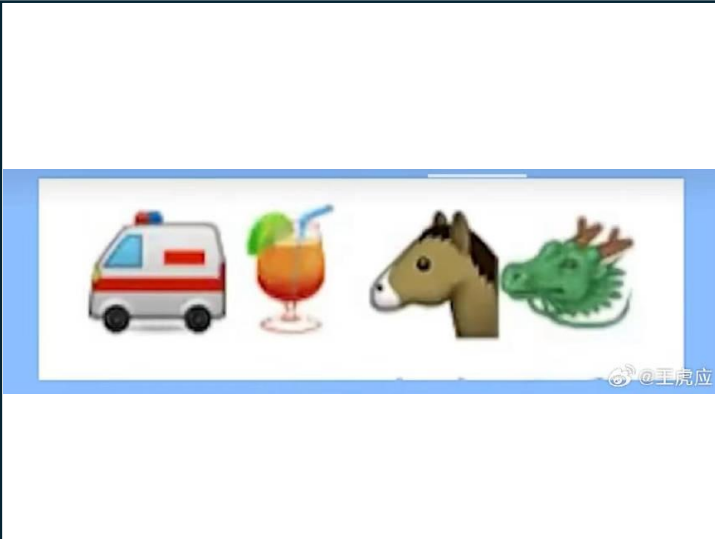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8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